

7. 영 인 면

[66] 고 용 산

영인면 성내리 신봉리 경계에 "고용"이란 산이 있다. 높이는 약 300m에 이르며 초목은 없고 큰 돌만 많이 쌓여 있는 산봉우리가 들 가운데 높이 솟아서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병자호란때 이 지방 남녀들이 모두 이 산에 올라와 피난을 하는데 적병들이 사방에서 봉우리를 에워싸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적병을 향하여 돌을 내리쳐서 완전히 물리쳤다 한다. 그 돌이 그렇게 많이 산봉우리에 쌓여있던 까닭은 토정 이지함 선생의 선견지명 때문이었다. 선조때의 인물이었던 토정 이지함은 그 당시 안산 현감이 되어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을 태평가를 구가하였으므로 그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끊임 사이가 없었다. 평온한 날의 계속되던 어느날 하루는 심심하여 통인을 데리고 고용산에 올랐다. 그리고 산의 경치를 즐긴 뒤 통인을 시켜 여러 바위를 두드리게 했다. 그랬더니 그 중의 한 돌속에 금과 은이 가득차 있는지라 통인은 무척 놀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통인은 그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토정을 없앨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어느날 토정이 생지네즙을 먹고 생를 먹어서 지네독을 제거하는 것을 통인은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하여 토정이 생지네즙을 마신후 버드나무를 생를 처럼 하여 먹게 하였다. 그 순간 토정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래서 통인은 이때다 싶어 산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전날의 그 바위를 찾기 위해 돌이란 돌은 모두 깨쳤다. 그리하여 간신히 찾은 바위속에는 금은보화 대신 돌로 가득차 있었다. 기진맥진한 통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의 개놓은 돌이 구르는 바람에 깔려 죽고 말았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 아전중에서 아산아전이 가장 천대를 받았다 한다. 그러나 그때 통인이 금은을 찾기 위해 깨뜨려 놓은 돌로 병자호란때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니 토정 선생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멀리 앞을 바라보는 선견지명이 있어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창조해 낸 인물이었다.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자기가 부린 욕심보다 더 큰 피해를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가치없는 금은과 바꾸려했던 어리석은 통인의 이야기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옳게 사는 길을 제시해 준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67] 당 고 개

아산리에서 음봉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해가 기울고 있다. 정임이는 호미를 내 던지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는 멀리 보이는 고개마루를 바라본다. 남편은 오늘도 오지 않으려나 보다. 이태전 겨울 전쟁에 나가기 위해 당고개를 넘어가면서 꼭 돌아오마 던 남편 돌이는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전 남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순구가 돌아왔다. 팔이 하나 잘리고 몸은 병들어 그전의 젊은 모습은 간데 없었지만 마을은 기쁨에 출렁였다. 순구는 남편의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뭔가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것만 같았다. 정임이는 밤마다 남편이 진흙구덩이에서 허우적이며 정임이를 부르는 것을 본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진 정임을 보다 못해 순구가 찾아왔다. 돌이는 살아 있노라고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노라구..... 정임은 아기를 업고 돌이를 찾아갔다. 여름 뉘악별에 낮은 선길을 skrsek는 것은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는 힘겨운 것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된 장군을 구하여 그곳에서 장군의 딸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다. 정임은 아기를 남편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이 아이를 키워 주세요. 두 아내를 갖지 않고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아이로....」 정임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떠나 보내던 고개 위에서 지쳐 죽고 말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곳에 사당을 지어 그의 혼을 위로 하였고 전쟁터에 나가는 아이들 혹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였다. 사당이 있는 고개라 하여 당고개라 했다. 당집에 빌면 소원도 모두 이루어졌다. 몽고군도 지나는 길에 제사를 지낼 정도로 영험은 대단했다 한다. 또 일설에는 옛날 이 곳이 바다였을 때 그 여인이 이곳에 배를 타고 나가 자결한 후 생긴 곳이 배의 돛대 목처럼 생겼다하여 돛목고개라고도 한다. 이 전설을 듣고 나는 한국의 여인상을 본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여인, 조용히 체념하는 여인, 원망하지 않는 여인을.....

요즈음 젊은 여인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남성네들의 책임있는 언행도 따라야 된다고 본다.

[68] 부 처 바 위

아금니바위위 또는 부처바위라고 불리우는 불암은 동림산(영인산) 동북쪽 기슭에 있다. 이 바위에 산봉우리가 널려 있는 것이 거의 수십리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형상이 부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불암이라 이름한 것이다. 전해오는 말에는 이 바위는 매우 기괴함으로 수령은 어리석은 미치광이가 되고 향리들은 모두 흉악하고 감사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일찍이 그 바위에 글을 쓰기를 "괴석이 신기한 부처르 이우려 3년동안에 다섯원에 갈려 보낸다네, 강바람이 부끄럼이 있다면 눈을 몰아쳐 산의 얼굴을 가리우리라"하였다. 급기야는 토정 이지함이 이곳에서 현감으로 거세되었는지 모르겠다. 연인면 사무소 앞에 현재 이지함 선생이 돌아갔다는 비문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신기하오 충효롭고 아름다운 전설이 많다. 옛 선인들의 생활모습, 풍습들을 답사로써 읽[되어 기쁘고 내게 일거양득이란 것을 안겨 주었다. 고장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고 싶다.

[69] 쇠 재 산

아산군 영인면 신화 2구 이 동네에는 쇠재산이 있다. 이 산이 쇠재산이라고 불리우게 되기까지는 자그마한 전설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옛날 어느 가난한 무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날편이 논에 나가 일을 하다가 한 마리의 큰 구렁이를 보게 되었다. 남편은 그 뱀을 보자마자 세도막으로 잘라 죽였다. 그리고 세 도막을 나란히 땅속에 묻었다. 남편은 아무꺼리낌없이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그의 아내는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음을 걱정하였는데 아이를 갖게 되어 너무나 기뻐 어쩔줄을 몰랐다. 남편도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너무도 기뻐했다. 산후일이 되어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다. 두 부부는 그 아이에게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며 아들의 장래에 대해 의논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의 아내가 난 아이가 백일이 되자 그의 아내는 또 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아내는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다. 너무나도 이상했다. 그 남편은 아마 이 아기가 장군이 될 모양이야 하며 환희로 가득했다. 부인은 불안감과 초조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아내는 며칠이 지나 모드 다 잊게 되었다. 남편이 날마다 너무도 행복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다. 몇 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태어난지 백일이 되어 또 하나의 아기를 갖게 되었다. 아내는 너무너무 두려워 매일밤 기도를 하며 제발 아무일 없게 해달라고 빌었다. 세월이 흘렀다. 어느날 이야기 저 이야기 끝에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옛날 자기가 논에서 죽인 일을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러자마자 이 세아들은 다 죽어서 세도막으로 잘린 뱀으로 변했다. 부부는 너무 놀라 기절할 정도였다. 아내는 너무 슬퍼 집밖으로 뛰어나가 슬피 울었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그 연유를 물어 그 아내는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 스님은 아무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부인에게 하는말이 그 아들은 남편이 묻은 뱀이 한을 품고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오. 그러니 그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시오. aksedlf 그럴지 않으면 당신네 부부의 목숨이 위험하오. 그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부인은 어떻게 하면 아들은 뱀으로 되어 있으니 그 뱀을 나란히 이어서 널속에 잘 넣으 동네 뒷산에 묻고 보름달이 되면 그들을 위해 재를 올리시오. 그리고 나서 집을 돌아올 때 절대로 그 뒤를 바라다 보지 마시오. 만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은 소로 변하고 말 것이오. 아내는 명심하여 그 스님이 시키는대로 하였다. 그러자 자식들이 애달프게 부르는 소리에 참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는 순간 그 아내는 소가 되어 그 자식들의 묘에 끌려 들어갔다. 그후 그 묘에는 봄이 되어도 새잎이 나오지 않고 누런 풀잎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진 비바람에 깎이어서 묘의 자취는 간곳 없다. 그 일로 인해 불리워진 산이 쇠재산이다. 그 산을 가려면 괜히 몸을 움츠리는 무서운 생각을 가져오게 한다.

[70] 신랑봉과 각시봉

영인면 상성리 서북쪽 들가운데 슬픈 이야기를 간직하며 외로이 서 있는 산이 있다. 유복자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고 밤늦게까지 길쌈을 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열심히 글을 읽었다. 도령의 글 읽는 소리는 환한 달빛에 하얗게 피어나는 박꽃처럼 낭랑히 들리었다. 어느날 저녁 무렵 항상 산책을 하던 그는 별이 환하게 빛나는 밤에 산길을 건너다가 여인의 애달프고 간절한 목소리에 들려오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니 바위 옆에 서 있는 큰 나무 아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처녀가 있었다. "천지신명께 비옵나이다. 저의 아버님의 병환이 하루속히 낫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그 여인에게서 그는 성스러움을 느꼈다. 그를 발견한 처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안심하십시오. 산길을 거닐다가 목소리가 들리기에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낭자 아버님의 병환이 빨리 나으시길 저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처녀의 말고 고요한 눈을 볼 때부터 그는 처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 뒤로부터 그는 매일 이 나무 아래를 거니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어느새 그 처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처녀 역시 그의 깊은 생각과 진실한 마음을 사모하게 되었다. 여러달 동안의 지성에 처녀의 아버지는 병환이 나아져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후에도 그는 계속 나무 아래를 거닐었다. 처녀 역시 나무 아래를 자주 거닐었다. 만나면 만날수록 둘은 사모하는정이 더해갔다. 벼이 까무룩 잠든 밤에 그는 처녀에게 고백했다. "낭자 나는 당신을 마음 속 깊이 사모하오. 오랫동안 간직하여온 사모의 정을 받아 주시오. 나와 혼인을 해 주겠오?"

처녀는 놀랐지만 곧 정색을 하고 도령에게 "도련님, 도려님께서는 장차 이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셔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련님 한분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한날 천한 계집 때문에 도련님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처녀는 도령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사라졌다. 그 뒤로 그 처녀는 다시는 나무 아래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도령과의 사랑을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한점의 티도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간직하고 싶었다. 둘이 혼인을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장애가 있으므로 처녀는 도령을 위하여 괴로움을 혼자 삼키려고 하였다.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도령은 그날 어머니에게 처녀와의 혼인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내 눈에 흠이 되어 가기전에는 그렇게 못한다며 펄쩍 뛰었다. 이레 동안을 간청하던 도령은 병이 나서 누웠다. 물한 모금 넘기지 못하며 누워 있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허락을 하였다. 그러나 도령의 어머니가 허락을 했다고 해서 혼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도령과 처녀는 날을 받아 혼례를 치루었다. 혼례를 치루고 신랑집으로 가던 중 지금 신운리에 있는 길에 잠시 쉬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방에서 갑자기 도둑떼가 밀어 닥쳐 삼시간에 가마를 에워싸고 신부를 납치해 가려했다. 그러나 신부는 반항을 했으나 역부족이라 결국은 자결하고 말았다. 신부를 짝사랑하던 불=강배의 소행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가슴에 붉은 꽃을 안은채 아무말도 없었다. 도령은 실성한 사람처럼 통곡을 하였다. 신운리에 있는 산에 신부를 장사지낸 신랑은 별이 들어 자릴 높게 되었다. 신부를 부르며 사경을 헤매던 도령은 결국은 신부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 도령은 상성리에 있는 산에 묻히었다. 사람들은 도령이 묻힌 산을 신랑보잉라 하고 처녀가 신운이레 묻힌 산을 각시봉이라 이름하였다. 지금도 나는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는 이 두산을 볼때마다 이 두남녀가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사랑을 꼭 이루어서 두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아름다운 전설로 승화시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작은 소원을 다져본다.

[71] 쌀 바 위

아주 옛날 백석포의 뒷산에 있는 월랑산이라는 곳에 백련암이란 조그만 암자 하나가 있었다. 이 암자는 유명했다. 그래서 불공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곳은 경치도 좋았다. 사방에는 푸른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항상 많은 새들이 지저귀었다. 어느날 그 암자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스님이 뒤뜰을 거닐다가 뒤뜰에 있는 큰 바위에 조그만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스님을 깜짝 놀라 다가가서 그 구멍을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보였다.

스님은 깜짝 놀라 다가가서 그 구멍을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보였다. 스님은 바위가 오래돼서 구멍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쳐 버렸다. 며칠이지나서 스님은 다시 그 뜰을 지나게되었다. 며칠전 무심코 지나쳐 버린 구멍 밑에 하얀 쌀이한 주먹정도 떨어

어저 있었다. 스님은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그 구멍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 그 구멍은 그전 보다 약간 커져 단실히 주먹하나 들어갈 수 있데 뚫려 있었다. 스님은 주먹을 넣어 보았다. 손에 잡힌 것은 쌀이었다. 스님은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빼고 주위를 살펴 보았다. 혹시 누가 보는가 해서였다. 스님은 구멍을 표가 나지 않게해 놓고는 매일 혼자만 지켜 보았다. 이상 하게도 쏟아져 나오는 쌀이 매일 아침 암자에 있는 사람수대로 먹을만큼 나왔다. 스님이 더 이상하게 여긴 것은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을때는 손님수대로 더 나왔다. 하루는 욕 심 많고 어리석은 스님은 생각하기를 그 쌀바위의 구멍속에는 수백수만석의 쌀이 산적해 있 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매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시주를 얻어오지 않아도 되리라는 게 으른 생각에 그 구멍을 뚫으면 많은 쌀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그 구멍을 뚫을 것을 결심했 다. 스님은 다음날부터 긴 철장으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그러나 쌀은 전혀 보이지 않았 다. 약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며칠동안만 구멍은 크게 뚫어졌으나 웬일인지 쌀은 한 톨도 보이지 않고 맑은물만 보이지 않는가! 그 뒤 그 암자에는 불공을 드 리러 오는 사람도 끊어지고 폐허가 되었지만 맑은 물이 흘러나와 약수터가 되었다. 바로 그 곳이 백련암의 약수터라 한다. 그 스님에게 욕심이 아닌 불심(佛心)이 있었더라면 세상을 바뀌었을텐데.....

[72] 어금니 바위

고려 말엽 돈 많고 부자인 욕심장이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많은 땅이 있었기에 그에 따른 소 작인들로 자연 많을 수밖에 없었다. 노인에게는 칠삭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작인 들 중 어느 한 딸을 며느리로 맞으려 무척이나 애쓰고 있었다. 가난한 농가집 처녀이기는 하나 아름답고 현명하여 누구 못잖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처녀가 있었다. 노인은 몇번이 나 청혼을 했지만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누가 칠삭둥이에게 딸을 주려 하겠는가? 그러자 노인은 소작할 땅을 주진 않겠노라고 벌려 대었다. 소작을 하여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 부부에게는 보통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부모는 망설였다. "우리는 좀 있으면 저승으 로 떠나겠지만 우리 자식은 앞길이 구만기 같지 않은가?"

결국 그들은 허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효성스런 그들의 딸은 스스로 혼인 을 하겠다고 나섰다. 가족도 살고 또 자신도 편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펄펄 뛰었 지만 외동딸의 가혹한 마음을 저버리진 못했다. 혼인날 그의 부모들의 눈빛은 말하는 듯 했 다. "이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큰 흥년인데도 그 구두쇠의 광예는 양식이 그득했다. 며느리 는 동냥 오는 이들에게 무엇가를 몰래 주곤 했다. 또 남편을 가르치는데도 여념이 없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남편은 학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노인은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나 칠삭둥이 가 무슨 공부를 하라 싶어 아들이 졸라대자 미쳤다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내쫓아 버렸던 것이다. 그후 며느리는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어느새인가 그녀의 뱃속에는 아 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초라하게 차린 중 하나가 시주를 하러 왔다. 며느리는 여느때처럼 시아버지 몰래 쌀 한바가지를 시주했다. 옆친데 겹친 격으로 그것을 노인에게 들켜 버렸다. 며느리는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노인은 크게 성을 내며 중이 가진 쌀을 뺏고 는 외양간의 쇠뿔을 가득 뒤집어 씌우고 시주 그릇에 가득 담아 주었다. 욕설과 함께 퍼붓던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자 중은 며느리에게 슬며시 말했다. "지금 집에서 멀리 가시오. 곧 재 난이 닥치니 당신은 빨리 떠나시오. 단 가다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되오" 중은 의혹의 말 을 남긴채 어디론가 가 버렸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며 빨리 집을 떠나자고 했다. 노인은 계속하여 묻자 며느리는 재앙이 닥친다는 중의 말을 듣자 노인은 비 웃으며 "돌파리 중"이라고 외쳤다. 며느리는 아기를 업은 채 집을 나왔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무언가 무너지는 큰 무서움 소리가 들렸다. "절대로 뒤를 보아선 안되오" 중의 마지막 말이 귀를 메아리 쳤다. 여인은 마구 달려갔다. 하지만 며느리는 너무 궁금하여 뒤 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으리으리한 집 넓고 기름진 문적옥답이 씻기고 큰 연못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그녀는 아기 업은 형상의 바위로 변했다. 칠삭둥이 남편 이 성실한 일군이 되어 돌아왔을때는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였다. 그는 자신이 욕심 많은 아버지를 동정하고 효성스런 아내에 감복하여 외로운 장인장모를 모셨다 한다. 그 바위는 일명 어금니 바위라고 하며 지금도 염치면 서원리 2구 뒷산에서 뒤를 돌아본 채 서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의 큰 연못을 장자못이라 하며 아직도 남아 있다. 역시 사람이란 모름지 기 남을 돕고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

[73] 이상한 지게꾼

충청남도과 경기도의 한계에 한나루하고 하는 큰 나루가 있는데 이 나루는 경기도쪽으로 는 평택에 이어지고 충청남도 쪽으로는 아산과 이어지는 나루터였다. 이세 조선때였다. 토 정 이지함이 아산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다. 토정선생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토정 비결을 쓰신 유명한 분이다. 토정선생은 천문과 풍수지리에 능하였으며 또한 신통력도 가지 고 있었다. 하루는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거닐던 선생은 밤하늘을 쳐다 보더니 " 큰일 났구나"하며 걱정하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아전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보았다. "내일 12시 쯤이면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땅이 가라앉아 백성들이 죽을텐데 어찌 큰일이 아 니겠느냐?" 토정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홍수가 날만한 곳으로 달려 갔다. 집집마다 돌아 다 니며 대문을 두드리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홍수가 날테니 피난을 가라고 일러 주었 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이 알려준 것인지도 모르고 이 말을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한참 돌아다니다보니 자정이 가까워졌다. 토정선생은 바빠 다른 마을로 가 같은 말을 했다. 그래 도 어려운 줄도 모르고 한 사람의 백서 이라도 더 구할 욕심으로 부지런히 돌아 다니는 것 이었다. 한참 돌아 다니는 중에 웬 남루한 옷차림의 지게꾼이 토정선생의 곁에 다가오며 하 는 말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 끄고 남의 발등에 떨어진 물만 끄려 다니는 군"하고 비웃고 지나갔다. 이상하게 생각한 토정선생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축지법을 쓰고 있구나 하여간 따라가 보자' 생각한 토정선생도 축지법을 써서 쫓아가면서 "꼭 물어 볼 말 이 있으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같길이 바쁜데 귀찮게 따라 다니며 왜 부르는 거요? 지게꾼 은 투덜거리며 산중턱에 걸음을 멈추었다.

"보아하니 비범한 사람같은데 조금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아직도 내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말이오"

안타까운 듯 되물었다. 정 못알아 듣는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소. 얼마 안 있으면 이 앞의 독이 터질 것인데 당신의 생명이 더 위태롭단 말이오. 자신부터 피신을 해야할 것이 오. 토정선생은 깜짝 놀라며 "저는 오시에야 터질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요?" "물론 내일 오시에도 물난리가 있겠지만 오시와 자시는 서로 통한다는 것 모르오?" 지게꾼은 말을 한 뒤 사라졌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지가 진동하더니 강물이 마을로 닥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큰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얼마후 토정선 생이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자기가 서 있는 산바로 밑 지게꾼이 작대기를 짚고 있던 자리밑 으로는 물에 씻겨 내려가고 말았다. 토정선생은 이상한 지게꾼에게 깊이 감사했다. 전해오 는 바에 의하면 이상한 지게꾼은 바로 산신령이었다 한다. 토정선생을 구하기 위해 나타났 었다 한다. 그 마을이 가라 앉은 곳이 지금의 한나루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74] 청년못

아산군 영인면에 있는 긴가도 그리 많지 않은 마을 양옆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네 한가운데 포양쪽이라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못이 있다. 옛날부터 이 못을 해마다 농 사에 도움을 주고 풍년을 이루게 했다. 아득한 옛날 이곳 사람들은 가뭄에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다. 그러면서도 그 방도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루는 어떤 성년이 우연히 숲 길을 걷다가 조금만 웅덩이 속에서 허덕이는 붕어 한 마리를 보았다. 물을 구하듯 아가미를 벌리고 있는 붕어가 불쌍해 붕어를 잡아 자기 집으로 데려와 거다란 그릇에 넣고 그곳 웅덩 이의 흙을 퍼다가 넣어 키웠다.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았다. 청년은 전에 그 붕어가 있던 곳을 고쳐 그곳에 살리기 위해 웅덩이의 폭을 넓히려고 하자 웅덩이 속에서 커다란 바 위가 솟아나고 바위를 건드리니 맑은 물을 팔팔 솟아 올라왔다. 청년은 집의 붕어를 다시 웅덩이에 갖다 놓았고 그때부터 풍부한 물을 사용하고 마을의 농사를 풍년케 하니 만면에 웃음을 띄운 동네사람들은 가뭄에도 걱정없이 생활하게 되었다. 청년의 가혹한 정성과 노력 으로 이루어졌다하여 청년못이라 불리게 되었다. 지금도 그 웅덩이는 커다란 호수처럼 맑고

푸른 물이 솟아나고 있다. 청년은 이 세상에서 없어졌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청년의 아름다운 행동은 청년뭉의 맑은 물과 함께 영원히 솟아나리라.

[75] 토 정 비 결

토정 이 지함의 이야기다. 토정 선생이 귀신을 잘 보았는데 자기 조카의 명을 보니까 단명하여 형수께 말씀하기를 조카명을 이룰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한다. 내용인즉 사자밥을 지어 가지고 사자오는 길목에 가서 밥을 짓고 짚신과 돈을 준비하여 사장에게 대접을 극진히 하며 하라고 하는 것이다. 형수는 토정 선생이 말하는 그대로 하니 과연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잡으러 오는 것이다. 형수는 사자를 극진히 대접했다. 대접에 감복한 사자는 되돌아 왔으며 그리하여 조카는 명을 이어 장수하였다 한다. 소문에 인근에 파다하여 토정 선생의 말이 여러 사라므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므로 토정은 자신을 갖고 비결책을 내어 사용하였고 그 비결책이 잘 맞아 오늘날 토정 비결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말이 옛부터 아산지방에 전해오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희망과 기쁨인 것 같다. 지성이면 귀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이라고 믿는다.

[76] 허충각과 환혼석

충청도 아산땅에 허씨성을 가진 나무꾼 충각이 살고 있었다. 일찍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은 한명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았다고 한다. 허충각은 열심히 나무를 장터에 팔아 열심히 돈을 모았다. 그 이유는 예쁜 색시를 맞이하여 장가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어느날 나무를 장에 내다 팔고 마을 어귀를 돌아가던 길에 어린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노는 소리를 들었다. "하하 그것 참 예쁘게 생겼지" "어디 나도 한번 만져보자"야 단들이었다. 허충각은 그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꼬마가 하는 말이 "학의 알이 예요. 제가 저 높은 동우리까지 올라 가서 꺼내온 거예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허충각은 큰일 났다고 하면서 빼앗으려하자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깨어진 알 속에는 새끼가 될 어린 학이죽어 있었다. 허충각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지 나무위 동우리가 있는 나무까지 찾아온 허충각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이미 학의 동우리가 있는 곳에 다시와 본 충각은 깜짝 놀랐다. 두 마리의 새끼학이 반갑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생각해 봐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철이 바뀌자 학들도 충각과 이별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는 듯이 집주위를 맴돌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반짝거렸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동우리를 살펴보니 예쁜 돌맹이가 놓여 있었다. 신기한 돌맹이 같아서 집에 가지고 돌아와서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어느날 나무를 하다 큰 상처를 입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 왔다. 외로운 생각이 들은 허충각은 붉은 돌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고 눈을 뜨니 아픈 몸이 다 낫고 힘이 솟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허충각은 나무를 해놓고 잠시 쉬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학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아름다운 선녀로 변하더니 "도련님!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붉은 돌을 가지고 건너 마을 박진사 댁으로 가십시오.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수 있는 신기한 돌입니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난 허 충각은 언젠가 크게 다쳤던 일이 생겼을 때 감쪽같이 상처가 아물어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을 생각하여 그 돌을 가지고 박진사댁으로 갔다. 몇 달 전부터 무남독녀 외동딸이 원인모를 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다. 허충각은 박진사 집엘 찾아갔으나 하인이 앞을 막았다. 그래서 사정사정하여 하였더니 그 집 하인이 박진사에게 하는 말이 "웬 충각이 병을 고쳐 드리겠다고 와 있습니다. 미친 녀석이라고 생각이 되어 쫓아 내려고 했는데 충각이 아씨의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만일 못고치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박진사의 아내가 옆에서 들다가 죽을 목숨 한번 충각에게 맡겨 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자 충각을 데려오라고 했다.

처녀의 가슴 위에 붉은 돌을 올려 놓은지 한시간 두시간..... 여러시간이 지났지만 처녀는 죽은 듯이 꿈쩍 안했다. 이제는 틀렸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백지장 같던 얼굴에 붉으레한 핏기가 도는 것이었다. 온 식구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채 법석을 떨었다. 충

각은 박진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냐고 물으니 좋다고 하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였다. 허 총각은 "따님과 혼인하게 해 주십시오" 박진사는 놀라 딸에게 물었다. 딸은 좋다고 대답했다. 허총각은 아내를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옛 성현들의 말씀 그대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언젠가는 마음의 뉘우침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